

## 러시아 민담 ‘일곱 개의 별’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해석\*

황 명 숙\*\*

### 국문초록

러시아 민담 <일곱 개의 별>을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해석하였다. 민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의 어느 지방에 심한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말라 죽고 사람도 날마다 갈증으로 죽어간다. 어느 날 밤 소녀가 나무로 만든 국자를 가지고 물을 찾아 나서는데 소녀의 어머니는 중병에 걸려 물을 찾고 있었다. 소녀가 스스로 물을 찾아 나서는데 물은 어디서도 구하기 어려웠다. 어느 날 소녀가 지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머리 위에는 달이 떠 있었고 국자에는 물이 가득하였다. 소녀는 그 물을 들고 어머니에게 드리기를 위해 집으로 향하는데, 가는 길에 밭에 무엇인가 넘어져서 보니 개였다. 개도 심한 갈증으로 지쳐 있어서 소녀는 손에 물을 담아 개에게 먹인다. 개에게 물을 주고 보니 나무국자는 은국자로 변하여 있었고, 물을 어머니에게 드리자 은국자는 금국자로 변하였다. 그때 어느 노인이 나타나 물을 원한다. 소녀는 노인에게도 가까이 물을 드리는데 노인은 국자의 물을 응시하여, 소녀도 국자를 바라보니 국자 안에는 다이아몬드 일곱 개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물은 아무리 마셔도 줄지 않았고 일곱 개의 다이아몬드는 국자에서 튀어 나와서 하늘에 일곱 개의 별이 되어 국자 모양을 이루었다. 마을 사람들도 국자의 물을 얻어 마시고 기운을 회복했고, 오래된 가뭄도 끝이 나서 사람들은 모두 되살아난 기쁨에 춤을 추었다. 이 민담에서 심한 가뭄은 의식의 일방향으로 인한 황폐화를 의미하며, 소녀

접수일 : 2015년 4월 2일 / 심사완료 : 2015년 5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15년 6월 3일

\*본 논문은 2009년 원불교대학원대학교 교내학술지인 「실천교학연구」(제8호)에 발표한 “민담 ‘일곱 개의 별’의 심리학적 해석”을 대폭 수정, 보완한 논문임을 밝힌다.

\*\*중구교당 주임교무

는 이 황폐화를 치유할 수 있는 여성적 가치를 의미하는 신생기능이다. ‘소녀’로 상징하는 신생기능은 개인을 넘어 마침내 집단을 이끌어 가는 가치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딸’, ‘소녀’라는 새로운 기능을 통하여 모성성이 새로워짐으로써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과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는 무의식의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심 단어** : 민담 · 일곱 개의 별 · 분석 심리학 · 모성원형 · 여성성.

## 들어가는 말

재미있는 이야기쯤으로 단순하게 알고 있었던 민담이 분석심리학을 접하면서 민담 속에는 인간 정신의 보편적인 심상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다. 민담은 누구나 쉽게 공감하며 감흥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은 민담이 인간 정신의 보편적이고 심층적인 집단적무의식의 원형상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담은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다양한 상징과 문제해결의 과정들이 드러난다. 민담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해결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가 걸어가고 있는 개성화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체험과 연결된다.

분석심리학에서는 민담해석 작업을 인류 보편적인 집단적무의식의 원형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민담을 해석하는 교육과정은 필수적인 과정인데 그것은 원형상들의 상징적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민담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상징과 문제해결의 과정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체험과 연결되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나가는 개성화과정(자기실현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때문이다.

민담에 관심을 갖고 민담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꿈을 꾸었다. 내용을 요약하면 ‘혼자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여자) 말하기를 지나치게 합리적이어서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앞을 가렸던 내용이었다. 이 꿈을 꾸고 오랫동안 숙고해 보게 되었다. 출가하기 전에도 그랬고, 출가한 후에도 영적인

성숙을 향하여 삶의 많은 부분을 기꺼이 희생하고 나름대로 오롯하게 정진해 오면서 무심히 소외되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분석을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이 꿈을 꾸고 그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며 그러한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쳐 왔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어머니를 안고 울었던’ 꿈을 꾸고 우연히 이 민담을 접하게 되면서 무엇인가 마음에 와 닿는 느낌이 있었다. 민담의 전반적인 내용이 아름다우면서도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느낌이 들었다. 이 민담은 자기실현으로의 개성화과정의 길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숙고하는 기회가 되어 대상민담을 선택하게 되었다.

## 민담 ‘일곱 개의 별’

본 논고에서 해석을 시도한 민담은 러시아 민담으로서 ‘일곱 개의 별’ 이야기이다. 연구자는 이 민담을 대하면서 여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숙고하는 기회가 되었다.

### 1. 일곱 개의 별<sup>1)</sup>

옛날 아득한 옛날, 러시아의 어느 지방에 심한 가뭄이 계속된 일이 있었다. 두 달이나 석 달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므로 밭의 농작물은 말할 것도 없고 풀이나 나무는 죄다 말라 죽었으며 냇물과 우물도 모두 바싹 말라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식량은 준비를 해놓고 있었으나 물이 없었으므로 말할 수 없는 곤란을 겪고 있었다. 말이나 소는 차례로 죽어버렸고 사람도 날마다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한 어느 날 밤 소녀 하나가 나무로 만든 국자를 가지고 마을길을 걷고 있었다. 소녀는 물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소녀의 어머니는 중병에 걸려 있었다. 앓고 있는 어머니가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을까?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었다.

“아아, 물을 마시고 싶다. 죽기 전에 단 한 모금이라도 좋으니 물을 마시고 싶다.”하고 어머니는 가냘픈 목소리로 신에게 기도라도 하듯이 말하였다. 어머니의 그 하소연을 듣고 소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에게 물을 마시게 해드리고 싶

1) 조봉제(1975) : 《세계의 민담》, 아카데미, 서울, pp151-155.

어 물을 찾아 나선 것이었다. 그러나 물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소녀는 피로에 지쳐 길가에 앉고 말았다. 하늘은 맑아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별빛도 깜빡이듯이 빛나고 있었다. 하늘이 이래가지고는 당분간 비는 올 것 같지가 않았다.

소녀는 어느 덧 잠이 들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는 달은 자기의 바로 머리 위에 있었다. 깜짝 놀라 소녀는 일어서려고 국자를 든 순간 놀라움에 소리를 질렀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국자 안에는 깨끗한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었다.

소녀는 요 며칠 동안 물이라고는 마신 적이 없었다. 그렇게도 얻고 싶어 하던 물을 얻은 것이었다. 기쁜 나머지 울렁이는 가슴으로 자기도 모르게 국자를 입가에 가져갔다. 그러나 그때 중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 빨리 가져다 드려야지.”하고 소녀는 생각을 고쳐먹었다. 소녀는 소중한 국자의 물을 한 방울이라도 엷지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기운을 내어 집 쪽으로 걸어갔다.

얼마 동안 갔을 때 소녀는 뒷에 걸려서 비틀거렸다. 비틀거리는 통에 귀중한 국자를 떨어뜨렸다. 소녀는 놀라서 황급히 국자를 주웠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국자의 물은 한 방울도 엷질러지지 않았던 것이다.

소녀는 마음속에서 신에게 감사했다. 그리고는 다시 걷기 시작하자 피골이 상접한 개가 자기의 발밑에서 가쁜 숨을 쉬면서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소녀가 걸려서 넘어질 뻔 했던 것은 이 개였던 것이다. 개는 소녀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물을 마시게 해 주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소녀는 “가없게도, 이 개도 죽겠구나. 한 모금만 마시게 해 주자.”하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국자의 물을 손에 조금 받아서 마시게 해 주었다. 개는 기쁜 듯이 꼬리를 쳤다.

소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문득 정신을 차리니 국자가 더 무거워진 것 같았다. 자세히 보니 나무로 만든 국자가 어느 사이엔지 은으로 된 국자로 바뀌어져 있었다. 소녀는 깜짝 놀랐으나 어머니에게 한시라도 바빠 물을 갖다 드리기 위하여 그대로 자꾸만 걸어갔다.

물을 보았을 때의 어머니의 기뻐하는 모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눈에 생기가 돌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서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꼭 붙잡았다. “고맙다.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는 꿀꺽 꿀꺽 물을 마셨다. 그러나 어머니는 두세 모금 마시자 죽어가고 있는 자기가 마시기보다는 딸에게 마시게 하는 것

이 좋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이제 많이 마셨으니 나머지는 네가 마셔라.”라고 말하고는 어머니는 소녀에게 국자를 넘겨주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번에는 은으로 된 국자가 금으로 된 국자로 변해 있었다. 어머니도 소녀도 깜짝 놀랐으나 두 사람이 지금은 물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특히 소녀는 거의 목구멍에서 손이 나올 정도로 물을 마시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참고 또 참으면서 말했다. “전 안 마셔도 좋아요. 그러나 어머니가 많이 마셔서 빨리 병이 나아 주세요.” 딸의 고운 마음씨에 어머니는 기쁜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괜찮아, 나머지 물은 네가 마시는 것이 어머니는 기쁘단다.”

두 사람이 이렇게 주고받고 있을 때 여윈 노인 한 분이 들어왔다. “지금 물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물이 있거든 저에게 한 모금 주십시오.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소녀는 노인이 가엾게 여겨졌다. 자기가 마시고 싶은 것도 잊고 “자, 잡수세요.”라고 말하면서 국자의 물을 노인에게 마시라고 내어밀었다.

노인은 기쁜 듯이 싱긋이 웃었다. 그러나 노인은 물을 마시려 하지 않고 가만히 국자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소녀는 의아하게 생각하여 국자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국자 안에는 뽀짝이는 다이아몬드 일곱 개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소녀가 깜짝 놀라고 있으니 노인은 싱긋이 웃으면서 국자의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마셔도 국자의 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노인의 모습은 갑자기 없어지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물속의 일곱 개의 다이아몬드도 국자에서 튀어나와서 높이 높이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소녀는 창가로 달려가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때 북쪽의 하늘에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일곱 개의 별이 국자의 모양으로 나란히 뽀짝이고 있었다. 어머니와 소녀는 아무리 마셔도 줄지 않는 국자의 물을 마시고 완전히 기운을 회복했다.

마을 사람들도 이 국자의 물을 얻어 마시고 모두들 기운을 회복했다. 이윽고 오래 계속된 가뭄도 끝났다. 애타게 기다리던 비가 쏟아질 때는 모두가 다시 되살아난 것처럼 춤을 추었다.

## 2. ‘가뭄’ 모티브와 유희

이 민담의 도입부에서 먼저 제시되는 상황은 온 세상이 ‘가뭄’이 들어 농작물은 모두 말라 죽고 말이나 소도 차례로 죽어가고 사람도 갈증으로 죽어간다고

시작한다. 이 민담에서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이 가뭄이 들어 많은 생명들이 죽어 가는 것이다.

가뭄에 관한 유회를 살펴본다. 중국 신화에는

동방의 큰 신 帝俊의 아내인 羲和(희화)는 태양신으로 열 개의 태양을 아들로 낳았고 이들 열 개의 태양은 동방의 끝 양곡이라는 곳에서 매일 교대로 하늘로의 여행을 시작하였다. 열 개의 태양은 양곡의 뜨거운 물에서 몸을 씻고 扶桑(부상)이라는 거대한 뽕나무 가지에서 교대로 도착하고 출발하였다.

열 개의 태양은 요 임금 때 이 규칙을 어기고 동시에 모두 떠오른 적이 있었다. 그러자 초목과 곡식이 타 죽고 강물이 말라붙는 등 지상 세계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고 말았다. 결국 영웅 예가 요임금의 요청에 의해 활로 열 개의 태양 중에서 아홉 개를 맞추어 떨어뜨리고 나서야 이 소동은 진정되었다.<sup>2)</sup>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타난다. 이 이야기는 태양의 아들이 운행의 법도를 어겨 지상에 피해를 주었다는 내용이다.

태양신 헬리오스(아폴론이라고도 함)의 아들 파에톤이 태양의 수레를 잘못 몰아 지상에 불세례를 안겨 준 것이다. 이로 인하여 온 세상이 열기에 메말라 강과 바다가 마르고 대지는 툭툭 갈라지고 동물도 모두 죽어가기 시작했다. 시시각각으로 달아오르는 지상의 열기와 갈증 때문에 온 세상이 마비되는 듯 할 때 전능한 신 제우스는 어떻게든 한시바빠 손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제우스 신은 높은 탑으로 올라가 우레를 일으키고 벼락을 휘둘러 파에톤에게 던짐으로써 마침내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sup>3)</sup>

앞의 두 가지 유회는 가뭄의 원인이 에너지의 과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민담은 가뭄의 원인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두 가지 유회와 대상민담은 해결방법에서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신화와 로마 신화인 「파에톤」의 이야기는 가뭄을 해결하는 방법이 ‘영웅신’이 출현하여 남성적인 방법으로 극심한 가뭄의 현상을 해결한다. 반면에 대상민담은 소녀의 끝

2) 정재서(2005) : 《이야기 동양신화 1》, 황금부엉이, 서울, pp84-85.

3) 토마스 벌핀치 지음/이윤기 옮김(1996) :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 대원사, 서울, pp80-90.

없는 인내심과 자기희생을 통한 여성적인 방법으로 치유하고 해결해 가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해결 방법의 차이는 신화와 민담의 차이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또 다른 이야기는 대지의穀神(곡신)인 데미테르와 그녀의 딸 페르세포네와 관련한 이야기이다. 대지의 신인 데미테르가 딸 페르세포네를 잃어버림으로써 그 분노로 대지에 생명력을 빼앗았다가 다시 되돌려 주는 이야기가 있다.

중국 신화를 보면 7년 가뭄에 자신을 제물로 바친 임금의 이야기가 있다.

제후국 은나라의 왕조 탕은 쇠퇴한 하나라를 정벌하고 은 왕조를 건설했다. 백성들은 성군의 다스림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듯 했다. 그런데 가뭄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어려움에 빠졌고 백성들은 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탕은 하늘에 비를 청하는 기우제를 지냈건만 도무지 반응이 없어 답답한 나머지 탕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비가 내릴 수 있는지 사관으로 하여금 점을 쳐보게 하였다. 사관이 점을 치자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점괘가 나왔다. 인자한 탕은 무고한 백성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침내 제사를 지내는 날 탕은 몸을 정결히 하고 제단에 올라 좌우의 제관들이 막 제단에 불을 붙이려 할 때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먹구름이 몰려와 순식간에 큰비가 쏟아졌다. 탕의 정성에 감동한 천제가 단비를 내려 7년 가뭄을 종식시킨 것이다.<sup>4)</sup>

이 이야기는 왕이 정치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들어 치성을 드렸지만 마침내 인간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결국 왕이 스스로 기꺼이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일찍이 인류학자 프레이저가 증언한 바 있듯이 고대의 왕들은 재난이 닥칠 경우 제의적인 방식으로 희생되었다. 왕은 우주의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재난이 생길 경우 이는 왕의 기운이 쇠퇴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때 노쇠한 왕은 빨리 제거하고 젊고 신성한 기운을 지닌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야 나라의 재난이 사라진다는 것이 고대인의 일반적 관념이었다. 즉 천재지변으로 국가적인

4) 정재서(2005) : 《이야기 동양신화 1》, 황금부엉이, 서울, pp291-302.

5) 정재서(2005) : 앞의 책, pp301-302.

재난이 일어나면 왕은 희생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위지』 「동이전」의 기록을 보면 夫餘(부여)에서 흉년이 들 경우 왕을 죽였다는 기록을 이러한 맥락에서 알 수 있다.<sup>5)</sup>

앞에서 살펴 본 유화들의 공통점은 적극적인 중재(조정)의 역할이다. 왕은 자기희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중국 신화와 로마 신화 「파에톤」의 이야기는 우주 운행의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주고 있고, 로마 신화의 「데미테르」의 이야기는 딸을 잃은 모성신의 분노와 부성적 지하계 신과의 화해를 표현하고 있다. 세상이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다. 중국 신화의 우연한 규칙위반, 그리스 신화의 신의 조종 실수, 데미테르 신화의 제신들의 갈등, 그리고 하늘이 인간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하늘을 대변하는 왕의 기운의 쇠퇴 등이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중국인들이 말하는 ‘비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본다.

빌헬름이 살던 곳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 몇 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 가톨릭 신자들은 행렬기도(processions)를 했고, 개신교인들은 기도를 드렸고, 중국인들은 신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가뭄을 일으킨 귀신들을 놀래게 만들어 쫓아내기 위해 총을 발사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마침내 중국인들은 ‘우리가 비를 만드는 사람(rain-maker)을 불러와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부터 바깥 마른 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가 요구한 것은 다만 아주 조용한 작은 집이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사흘 동안 방에 꼼짝 않고 틀어 박혀 있었다. 넷째 날 구름이 모이더니 눈이 오지 않을 때인데도 엄청난 눈보라가 내렸다. 그리고는 도시가 온통 비를 만드는 이상한 사람에 대한 소문이 가득했기에 빌헬름은 그 사람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는 유럽식으로 물었다. ‘그들은 당신을 비를 만드는 사람(rain-maker)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눈을 만들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작은 중국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눈을 만들지 않았소. 내가 눈을 내리게 한 게 아니요.’ ‘그러면 사흘 동안 무엇을 하셨단 말입니까?’ ‘오 그걸 내가 설명해드리리다. 난 사물들이 질서 속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그런데 여기 와 보니 사람들이 질서에 벗어나 있었소. 하늘의 명령에 따라 마땅히 질서 속에 있어



야 하는데 말이요. 그러므로 온 나라가 도(道 : Tao) 안에 있지 않았고, 나 또한 질서를 벗어난 나라에 있었기에 사물의 자연스러운 질서에서 벗어나 있었지요. 그래서 나는 내가 도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삼일동안 기다려야 했고, 그 다음에 자연히 비가 왔던 겁니다.<sup>6)</sup>

비를 만드는 사람은 가뭄의 원인을 ‘道’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마땅히 사물의 기저를 이루는 질서가 있어야 만물이 그 안에서 생성되고 변화하게 되는데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 모든 만물이 시들어 죽게 되고 인심은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다. 만물이 질서를 지향하는 심리학적인 의미는 의식의 일방성에서 벗어나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전체가 되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Self) 원형의 작용과도 같다.

자기원형은 지남력(指南力)의 원형으로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혼돈에 빠졌을 때 방향을 가리켜 주는 것이다. 그것은 질서를 형성하며 혼돈으로 하여금 우주로 전환케 하는 것이다. 정신장애의 치유도 이와 같은 내적인 치유기능이 있음으로 가능하다.<sup>7)</sup> 이러한 자기원형의 기능은 인간으로 하여금 전체가 되게 하는 것이며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것이다.

대상민담은 온 세상의 가뭄과 어머니의 중병을 ‘물’을 구함으로써 해결한다. ‘물’은 만물이 태어나고 발생하는 생명력의 원천으로써 어머니의 병들과 세상의 가뭄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힘을 갖고 있다. 가뭄과 관련한 유희들은 가뭄의 원인을 삶의 기저를 이루는 ‘질서의 파괴’로 보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찾는 것이었다. 사물의 자연스러운 질서지음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그저 그렇게 스스로 되게 하는 無爲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상민담과 유희들은 모두 질서의 파괴로 인한 재난을 질서의 회복을 통해 해결한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질서 파괴의 동기는 우연한 규칙 위반(중국 신화), 신의 조종실수(그리스 신화), 제신들의 갈등(데미테르 신화), 하늘이 인간의 충성심을 시험하는(순임금) 것과, 하늘을 대변하는 왕의 기운의 쇠퇴 때

6) Jung CG(1963) : CW 14, *Mysterium Coniunctionis*, par 604,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p419-420.

7) Jung CG(1951) : *Aion*, Rascher, Zürich, p56. ; 이부영(1999) :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p117. (재인용)

문에 일어난다(프레이저)고 설명된다. 그 해결 또한 이에 상응한다. 그런데 재난의 상황에서 민담은 자주 영웅의 출현이나 영웅적 행위를 촉구한다. 재난이 영웅을 부르기 위한 목적이거나 그 중요한 전제 조건인 것처럼(중국신화의 10개의 태양을 쏜 영웅, Rain maker, 대상민담에서의 소녀) 보인다.

## 분석심리학적 해석

### 1. 온 세상의 가뭄, 어머니의 중병

온 세상이 가뭄이 들어 대지가 메말랐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집단 의식에 공급되던 에너지가 고갈되어 생명력을 잃었으며, 개인의 의식이 집단 의식에 맹목적으로 동일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지는 또한 생명의 토대일 뿐 아니라 모체로서 모성성을 상징하는 만큼 모성성의 황폐화, 정신적 토대의 황폐화를 의미한다. 주인공의 어머니가 중병이 들었다는 것은 집단적인 모성성과 함께 개인적인 모성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감정이 극도로 메마르고 건조하여 생기가 없으며 의식에 쓰일 에너지의 고갈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임상적으로는 의식의 태도가 일방향에 치우쳐 페르조나만의 식하고 밖으로 드러나는 삶에만 몰두하여 에너지를 다 써버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의식의 일방성은 의식과 무의식의 단절을 야기하여 의식이 무의식에 있는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여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건조해진다. 이러할 경우 사람은 즐거운 일은 아무 것도 없고 정신력은 고갈되어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는 상태에 빠진다. 정신의 전체적인 균형이 깨진 상황, 그래서 심혼의 불안정한 상황을 나타낸다.

대상민담은 가뭄이 왜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어머니인 대지의 메마름, 주인공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에서 이 민담은 모성성의 위기를 보여 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모성성의 심리학적 상징에 관련하여 융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린이는 어머니를 현실의 어머니로만 볼 뿐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母性像(mother-*imago*)의 투사를 통해 본다. 이 투사된 모성상이란 모성적인 것의 상징으로서의 像이며, 모성 원형상과 같은 것이다. 모성 원형상은 태초로부터 인류가 모성

과 모성성에 대하여 생각하고 상상하고 경험한 모든 것이 집전되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모성상의 원초적 행동양식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성상은 실제의 어머니, 계모, 장모, 시모 등의 개인적인 모성으로부터 보다 높은 의미에서의 모성 원형상, 즉, 여신, 모성신, 성처녀,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로는 교회, 대학교, 도시, 물질, 지하세계 그리고 달 등 이다.<sup>8)</sup>

모성 원형상에 대하여 융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은 오로지 여성적인 것의 마술적인 권위 ; 상식적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와 정신적인 숭고함 ; 자애로움, 돌보는 것, 유지하는 것, 성장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제공자이다. 또한 그것은 마술적 변용의 터이고, 재생의 터이다. 도움을 주는 본능이나 충동이며 비밀스러운 것, 감추어진 것, 어둠, 심연, 죽은 자의 세계, 삼켜버리고 유혹하고 그리고 독살하는 것,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sup>9)</sup>

이런 점에서 어머니는 ‘모성적인 존재’로서 자애로우며, 돌보고, 성장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며 영양을 공급해 주는 제공자이다.

모성의 기본적인 성질 중 하나인 에로스는 관계를 맺는 기능으로 그것은 곧 무의식과의 관계맺음에도 해당이 된다. 융도 에로스를 현대적 언어로 말한다면 심혼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0)</sup> 그 관계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해당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 안으로 소급시킨다면 그 개인의 정신 안에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 융도 말했듯이 어머니는 우리가 맨 처음 체험한 외부세계이고 동시에 내면세계이기도 하다.<sup>11)</sup>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맨 처음 만난 어머니는 모성의 기본 성질로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단절된 균열을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의식과 무의식의 대립뿐 아니라, 주체와 객체의 대극을 연결해 준다.

8) Jung CG(한국 융 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2) : 융 기본저작집 2권 《원형과 무의식》, 솔, 서울, pp201-202.

9) Jung CG(2002) : 앞의 책, pp202-203.

10) Jung CG(한국 융 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 : 융 기본저작집 9권 《인간과 문화》, 솔, 서울, p46.

11) Jung CG(한국 융 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6) : 융 기본저작집 8권 《영웅과 어머니원형》, 솔, 서울, p262.

모성은 인간존재의 물질적 근거를 이루고 모든 것을 키워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돌보고 유지함으로써 풍요롭게 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모성은 에로스로서 의식과 무의식의 연결뿐 아니라 주체와 객체의 대극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대상민담에서는 온 세상에 가뭄이 들고 어머니는 병들어 있음으로써 이와 같은 에로스의 위기를 맞고 있음을 보여 준다.

## 2. 소녀가 물을 찾으러 집을 나선다

소녀는 어머니를 위해 물을 찾으러 스스로 집을 나선다. 증병이 든 어머니를 구하는 길은 ‘물’을 구하는 것이다. 소녀가 ‘물’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나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떠나는 것이다. 소녀는 심리학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소녀란 심리학적으로 채 성숙하지 않았으나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완성이라기보다 완성을 향한 지향성을 뜻한다. 소년은 장래의 남성이 되려는 지향성이라면, 소녀는 여인의 지향이라는 점에서 능동적, 지적 속성이기보다는 수용적이며 때로는 감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지향성이다. 동시에 이야기 속의 소녀는 남성의 마음에 숨어 있는 감정적 순수성 혹은 소녀같이 어린 감정을 상징한다.<sup>12)</sup>

칼 케레니와 융은 그리스 신화에서 ‘신성한 소녀’, ‘신성한 아이’에 관해 밝히고 있다.<sup>13)</sup> 대상민담에서 소녀는 보통 소녀가 아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소녀는 바로 ‘신성한 소녀’의 면모를 보여준다.

대상민담에서는 온 세상이 가뭄이 들고 어머니가 증병이 들었으므로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딸이 물을 찾아 집을 떠나는 내용이다. 바로 기존의 모성은 병이 들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미래의 여성성이라 할 수 있는 딸의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딸은 모성성 속에 있는 신생기능으로써 모성성의 심각한 손상을 치유해 가는 길이 된다. 이는 ‘딸’, ‘소녀’라는 새로운 기능을 통하여 모성성이 새로워짐으로써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과제를 해결해가고자 하는 무의식의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야기에서 주인공인 ‘딸’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다. ‘어머니와 딸’의 관계의 원형은 ‘데미테르와 코레’의 신화

12) 이부영(2011)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p111.

13) Jung CG, Kerényi(1951) : *Einführung in das Wesen der Mythologie*, Rhein Verg, Zürich. ; 이부영(2011) : 앞의 책, p105. (재인용)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응에 의하면 ‘데미테르와 코레’,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여성의 의식을 상하(과거와 미래) 양쪽으로 확장한다. 그들은 ‘더 늙고 더 어린’, ‘더 강하고 더 약한’ 차원을 여성의 의식에 추가하고 공간과 시간에 묶여 좁게 제한된 의식을 확대시키며 사물의 영원한 과정을 공유하는 한층 더 크고 포괄적인 인격을 암시한다.(중략) 선형적으로 존재한 정신은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정신에 참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딸의 정신에 도달하게 된다. 모든 어머니는 자신 안에 그녀의 딸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딸들 또한 자기 어머니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여성이 뒤로는 자기 어머니에게로 앞으로는 자기 딸에게로 확장해 간다. 이러한 참여와 뒤섞임은 시간에 대한 독특한 불확실성을 제기한다. 여성은 처음에는 ‘어머니’로 살고 나중에는 ‘딸’로서 산다(여성은 전반부의 삶의 시기 동안에 주로 ‘모성상’과 동일시되어 살아가다가 후반부의 삶에서 그 동일시에서 벗어나 비로소 개인 인격적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대를 의식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녀의 삶이 여러 세대로 확장되어 가는 느낌을 갖게 된다.(중략) 이러한 것이 여성 운명의 원형이 된다.<sup>14)</sup>

딸은 바로 어머니 자신의 확장이다. 딸은 어머니를 어머니 자신의 과거와 젊음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자기 인식과 새로운 존재로의 재탄생을 약속하며 미래로 이끈다.<sup>15)</sup>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바로 여성의 의식을 과거와 미래로 확장하여 더 크고 포괄적인 인격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소녀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물을 찾아 집을 떠나 물을 얻어 귀환한다는 것은 결국 소녀가 선형적으로 어머니의 정신에 참여하고 한편으로는 딸의 정신에 도달하여 진정한 여성으로의 변화, 나아가 모성으로의 성장을 통하여 비로소 개인의 인격적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다.

### 3. 소녀가 피로에 지쳐 깜박 잠이 들다.

여기에서 소녀가 물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나는 시점이 밤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밤은 어둡고 내일을 위한 휴식의 시간이며 고요함의 시간이다. 이러한 밤에 소녀가 홀로 국자를 들고 물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난다는 것은 의

14) Jung CG(1959) : CW 9-1,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Kore*,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188.

15) 모린머독/고연수 옮김(2014) : 《여성 영웅의 탄생》, 교양인, 서울, p188.

미가 있다. 밤에 대한 상징을 살펴본다.

밤은 혼돈, 잉태, 창조, 준비, (중략) 암흑, 퇴행, 모성, 밀회의 시간을 뜻한다. 밤은 의식의 낮에 비해 무의식의 시간이며 혼돈이면서 탄생, 새 생명이 배태하는 고통의 시간이면서 모성성, 풍요, 그리고 밀회의 시간으로 암흑과 어둠의 시간이면서 잠, 휴식 그리고 회복의 시간이다.<sup>16)</sup>

밤은 우주 창조 이전의 원초적 암흑, 재생의 통과의례에 의한 새로운 탄생 전의 어둠이다. 태양은 저녁마다 어머니의 바다로 침수하였다가 아침이면 다시 새롭게 탄생하는 불멸의 신으로 보았다. 바다를 향해하는 모든 신들은 태양의 형상을 지닌다. 그들은 밤의 바다향해(프로베니우스)동안 온갖 위험으로 위협 받으며 수중의 괴물에게 잡혀 먹힌 후 그 괴물의 뱃속에서 잡혀 먹힌 사람들을 모두 해방시키고 자신도 그 곳에서 나오면서 영웅으로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밤의 바다향해의 과정의 심리학적 의미는 자궁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그리움으로, 즉 태양처럼 불멸의 존재가 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태양영웅은 어떤 사건을 해결하거나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일정기간 휴면상태에 있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깨어나 새롭게 활약하는 것이다.<sup>17)</sup>

소녀가 밤에 집을 떠나는 것은 어둠과 두려움을 떨치고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밤의 시간은 또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휴식과 변화를 모색하는 시간이며 준비의 시간이기도 하다.

소녀는 길을 걷다가 지쳐 그만 깜빡 잠이 든다. 길을 걷다가 지쳐서 깜빡 잠이 들었다는 것은 소녀가 의식의 한계에 처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의식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주인공이 오랫동안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은 민담에서 자주 묘사된다. 민담에서 주인공이 오랫동안 헤매다가 지쳐서 잠이 든다는 것은 자아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뒤에 자신의 의지대료가 아니라 '무의식'의 의향에 내맡긴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녀는 깜빡 잠이 든다. 여기에서 '잠'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잠은 무의식 상태로 이행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창조와 재

16)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강신표 외)(1992) :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서울, pp256-259.

17) Jung CG(2006) : 앞의 책, pp75-80.

생 그리고 부활의 준비를 위한 모색의 시간을 의미한다. 여러 창조 신화에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면 주인공이 한동안 잠을 자는데 바로 이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새로워지는 것이다.

잠을 잔다는 것은 무의식으로의 하강을 의미하는 것이다. 융은 ‘밤바다 여행 (night sea journey)이 일종의 지옥으로의 하강이며, 이 세상 너머 어딘가에 있는 신들의 땅으로의 여행, 의식을 넘어 무의식 속에 침잠하는 것이다.’<sup>18)</sup>라고 했다. 바로 잠은 무의식의 바다, 미지의 세계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문제해결을 위한 침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잠은 지친 몸과 마음을 휴식함으로써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고요함에 머물러 반추함으로써 새로운 모색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소녀가 눈을 떴을 때 달은 자기의 머리 바로 위에 있었다. 달의 상징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달은 차고 기울고 사라지기도 하는 천체로서, 그 일생은 생성, 탄생, 죽음이라는 보편 법칙에 지배된다. 달은 인간과 아주 흡사해서 비극적 ‘역사’를 체험한다. 이지러져가는 달은 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죽음으로써 끝맺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죽음’ 뒤에는 재생이 뒤따른다. 달은 스스로의 운명에 의해서, 스스로의 본질로부터 재생한다. 따라서 물, 비, 식물, 풍요 등 순환적 생성법칙에 지배되는 우주의 모든 영역을 달이 통제하고 있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월상(月相)은 천문학적 시간과 구별되는 구체적 시간을 인간에게 계시해 준다. 월상에 지배되고 측정되는 시간은 말하자면 ‘살아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항상, 비, 조수, 파종, 월경주기 등 생물 우주적 현실과 관계된다. 달의 리듬에 따라서, 혹은 그 영향으로, 다양한 ‘우주적 영역’에서의 일련의 현상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sup>19)</sup> 소녀가 눈을 떴을 때 달이 머리 위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변화의 생성과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소녀가 눈을 떴을 때 달은 소녀의 머리 바로 위에 있었다’는 말에서 우리는 ‘달’이 국자 안에 깨끗한 물을 고이게 만든 치유의 여신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소녀의 자아는 무의식 상태에 있으나 달로 표현되는 무의식의 자율적 치유

18) Jung CG(1954) : CW 16, *The Psychology of Transference*,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245.

19) 미르치아 엘리아데/이재실 옮김(1993) : 《종교사개론》, 까치, 서울, pp153-154.

기능은 스스로의 변환능력을 발휘하여 정신적 불균형을 바로 잡는다. 환자들의 갈등과 고통이 잠을 자고 나서 해소되고 지혜로운 판단을 되찾는다는 사례는 흔히 있다. 의식의 노력을 끝까지 한 다음의 잠이었기에 그 치유력은 더욱 강력했다고 할 수 있다. ‘달과 물-달과 여성-여성성-음력, 바닷물 조수-생명’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달과 물은 모두 여성원형상이다.

달은 여성적인 힘, 〈太母神〉, 〈하늘의 여왕〉을 상징한다. 달은 보편적으로 순환적 리듬을 상징하며 우주적 생성을 나타낸다. 달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변화는 不死와 영원, 영속적 갱신을 상징하며 영적 광명을 나타낸다.(중략) 주기적 재창조로서의 달은 〈시간〉과 〈시간을 재는〉 척도이다. 달은 끝없이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생성의 세계를 상징한다. 달은 밀물과 썰물, 降雨, 강과 호수의 물, 홍수, 사계절을 지배한다.<sup>20)</sup>

윤은 달에 대해서 세니오르 차디스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만월은 철학자(현자)의 물이고 학문의 뿌리이다. 왜냐하면 달은 습기의 지배자이고 완전하고 둥근 돌이며 바다이기 때문이다. …… 여기서 달은 (이시스처럼) 습기의 주인으로서 물의 형상을 한 원질료이며 그래서 물-돌의 어머니이다 : 그리스도와 유사한 라피스의 동의어이다. ‘시엔시아(학문)’와 ‘프리마 마테리아(원질료)’는 흔히 동일한 것으로 사용되므로 ‘학문(scientia)’ 혹은 ‘지혜(sapientia)’는 여성 원리로서 달과 동일하게 사용된다.<sup>21)</sup>

달과 물은 여성 원형상으로 소녀가 눈을 떴을 때 달이 머리 위에 떠 있고 국자에 물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은 달과 물, 달과 여성-여성성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은 리듬(비, 조수)에 따르며 발아력이 있기 때문에 달에 의해서 지배된다. ‘달은 물 속에 있다’ 그리고 ‘달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인도적 사변의 두 라이프모티프(leitmotif)이다. 월신들은 모두 물의 속성이나 기능을 상당히 보존하고 있다. 몇몇 아메리카 인디언 종족에서, 달이나 월신은 동시에 水神이기도 하다. 이것은 멕시코 이로쿼이 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브라질 중부의 어떤 부족은 월신의 딸을 ‘물의 어머니’라고 부른다. 고대 멕시코인 들의 달에 관련된 신

20) 진쿠퍼/이윤기 옮김(2003) :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서울, pp215-219.

21) Jung CG(2004) : 앞의 책, p234.



양에 대해서, 이에로니모 드 샤브르는 ‘달은 만물을 성장시키고 번식시키며(중략)’라고 하였으며, ‘모든 습기는 달에서 지배된다’고 하였다.<sup>22)</sup>

#### 4. 물을 구하다

물은 모든 만물이 태어나고 발생하는 원초적 근원인 생명력의 원천이다. 따라서 물은 출산과 풍요를 상징한다. 그러나 물은 생명의 물도 되는 동시에 파괴적인 죽음의 물도 될 수 있다. 물은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을 나타내며 개성화 과정을 통한 치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sup>23)</sup>

융은 물의 상징성을 연금술에 비유하여 해석하고 있다. 용광로 속의 여러 어려운 精練의 과정을 통하여 귀중한 물질을 얻어내는 연금술의 과정은 무의식이 여러 고통을 겪으면서 의식화되는 개성화와 비교될 수 있다. 물은 수은, 공기, 땅 등과 함께 연금술에서 말하는 원초적 물질을 구성한다. 이 원초적 물질은 연금술의 가장 유명한 비밀의 하나이다. 또한 원초적 물질은 무의식의 자율적인 정신적 내용을 투사하는 대상이 된다.(중략) 그래서 융은 이러한 원초적 물질을 자기(Self)와 일치한다고 하였고 또한 물은 전일성, 전체성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다.<sup>24)</sup> 물은 전일성, 전체성을 지니고 있는 생명의 원천으로써 어머니의 병든과 세상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치유의 힘을 지니고 있다.

물은 탄생하는 새로운 생명을 불러 넣어주므로 종교적 이니시에이션에서 피나 물로 세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중략) 중국에서 물은 팔괘에서는坎(감)에 의해서 상징되는 달에 속하는陰의 원리를 나타낸다. 물은 청순함과 북쪽을 나타내며 또한 물의 상징은 玄武나 검은 거북이다.(중략) 이슬람교에서는 물은 자비, 靈知, 정화, 생명을 나타낸다. 비나 샘물은 신이 진실을 계시함이다. 물은 또한 창조의 상징이다.<sup>25)</sup>

노자는 도덕경 8장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上善若水。水善利萬物而不爭，處衆人之所惡。<sup>26)</sup>

‘최고의 좋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아주 이롭게 해 주면서도 다투지 않고

22) 미르치아 엘리아데/이재실 옮김(1993) : 앞의 책, pp157-158.

23) 延炳吉(1990) : “한국의 물의 상징성에 관한 소고”, 《심성연구》 제 8호, p19.

24) 延炳吉(1990) : 앞의 책, p14.

25) 진쿠퍼/이윤기 옮김(2003) : 앞의 책, pp395-398.

26) 왕필/이재우 옮김(2005) : 《왕필의 노자주》, 한길사, 서울, p71.

못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또 78장에서는

天下莫柔弱於水 而攻堅強者莫之能勝 以其無以易之.<sup>27)</sup>

‘천하에 물보다 부드러운 것이 없으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기로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물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 물은 저항을 만나면 양보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며 또한 부드러운 강함으로 적응하고 인내하며 심지어는 단단한 바위라도 마멸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물은 세상의 만물을 기르면서도 항상 스스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물은 본래 그 성질이 부드러워도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돌도 뚫는 강인함이 있다는 것을 노자는 밝히고 있다.

물은 생명의 원천, 죽음과 재생의 터, 살아 있는 심혼의 상징이다. 비단 『도덕경』에 국한된 이미지가 아니고 인간의 살아 있는 심혼, 심적 에너지, 정신적 원천, 생성과 소멸, 재탄생이 문제되는 정신현상에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출현하는 원형적, 즉 보편적·근원적 상징이다.<sup>28)</sup>

융은 어느 낯선 사람의 꿈에 연속해서 물이 나타는 것을 해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이 무의식의 상징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계곡 속 호수는 무의식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의식 아래에 놓여 있다.(중략) 물은 골짜기의 신, 그 성질이 물과 비슷한 도의 수룡(水龍) 음(Yin, 陰)에 수용된 양이다. 그러므로 물은 심리학적으로 무의식화된 영(靈, 정신, Geist) 정신이라고 불린다.”<sup>29)</sup>

물은 또한 융합의 매개자이기도 하다. 「융합의 비의」(Mysterium coniunctionis)에서 융은 대극의 융합은 직접적인 결합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매개자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연금술 ‘최고의 물질’인 메르쿠리우스는 융합의 매개자이다. 연금술의 영적인 물(spiritual water), 영원한 물(aqua permanence)은 융합의 매개자, 영적인 물은 aqua aeris(水氣, aerial water)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생명의 원리이며 ‘결혼 중개자’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물과 공통의미를 갖는 동의어는 ‘바다’인데 이는 연금술의 ‘화학적 결혼(chymische Hochzeit)’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와 같은 바다가 이집트의 나일(인도의 바다, 적도의 바다)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융은 이 바다에서 놀랄만한 사실은 이것이 대극을 해소시키고 융합시킨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고귀한 결혼의 본질은 바다 향해의

27) 왕필/이채우 옮김(2005) : 앞의 책, p309.

28) 이부영(2012) : 《노자와 융》, 한길사, 서울, p152.

29) Jung CG(2002) : 앞의 책, p125.

주제에서 보는데 이는 괴테의 『파우스트』 제 2부에 에에게 바다 축제 등에서 제시된다고 하였다. 물이 가진 치유의 힘을 제시하는 말이다. 대극이 하나가 된다 함은 곧 전체가 되는 것이며 분열된 정신의 통일을 말하기 때문이다.<sup>30)</sup>

물은 만물이 태어나고 발생하는 근원이며 원천이다. 개인과 집단의 모성성의 황폐화는 바로 생명의 근원인 물로 치유될 수 있다. 물을 통해서 새롭게 의식을 회복하고 정화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소녀가 집으로 돌아 올 때 가져온 것은 물, 생명수이다. 소녀가 집을 떠났다가 구해 온 물은 소녀가 그의 존재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그것은 소녀가 가져온 물이 생명수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소녀가 가져 온 물은 단순히 마시는 물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로서 역할을 한다. 이 소중한 생명수를 얻어 기쁨에 넘쳐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해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 5. 돌아오는 길의 여러 만남과 적선

### 1) 개의 발견과 공양

소녀가 물을 구하여 어머니에게 돌아오는 길에 여러 만남이 있다. 먼저 개의 발견이다. 소녀는 물을 얻어 엎질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걸어가다가 무엇인가에 걸려 비틀거리다 발밑에 피골이 상접한 개를 발견한다. 소녀는 죽어가는 개에게 손에 물을 조금 받아서 준다. 개는 그 물을 얻어 마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여기에서 소녀가 귀환하는 길에 개를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소녀가 개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겨 개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행동은 매우 중요하다. 소녀는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여 스스로도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도 자신은 물을 마시지 않고 개에게 먼저 물을 준다. 여기에서 소녀의 “희생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동물이다. 이러한 개가 심리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개는 현세와 내세의 경계를 지키는 수문자, 통로의 수호자, 저승세계의 수호자, 죽은 자의 수행인,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자이다.<sup>31)</sup> 개는 복잡한 상징으로서 땅, 물, 달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숨겨진 여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30) Jung CG(1968) : *Mysterium Coniunctionis*, G.W. Bd, 14/2, Zürich, Rascher Verlag, pp228-229. ; 이부영(2012) : 앞의 책, pp159-160. (재인용)

31) 진쿠퍼/이윤기 옮김(2003) : 앞의 책, p103.

모든 것들은 전의식으로서 무의식의 성장과 성, 예언에 관련된다. 원시사회에서 개는 영혼의 안내자로 널리 퍼져 있다. 낮 동안에는 인간의 동료이고 죽음의 어둠을 통과하는 인간의 안내자가 된다. 서양의 문화사의 모든 단계에서 개는 헤르메스, 헤카테, 토트, 케르베로스, 아누비스와 같은 매우 강한 영혼의 인도자의 형태를 지닌다.<sup>32)</sup>

개는 인간과 가까운 동물로서 인간에게 본능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소녀가 개에게 먼저 물을 먹이는 행위는 곧 자신의 본능을 살리는 일이고, 무의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행위이다. 또한 손에 물을 담아서 개에게 주는 것에서 ‘손’이 갖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인간이 의식한 것을 실행할 때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이 ‘손’이다. ‘손’은 도구 중의 도구이고 손은 또한 손짓이 그렇듯이 언어이다. 예컨대 인간은 손짓으로 요구, 협박, 거부, 공포, 의문을 나타낼 수 있고, 기쁨, 슬픔, 참회, 길이, 시간, 수도 나타낼 수 있고 흥분, 금지, 시인, 부끄러움도 나타낼 수 있고, 힘, 강함, 축복도 나타낼 수 있다. 슈나이더는 손이 맡는 중요한 역할을 주장하는 바, 그것은 손이 인간 존재의 내적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이며, 목소리가 아닌 몸짓으로 정신의 태도를 표현하기 때문이다.<sup>33)</sup>

‘손’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곳보다 중요한 신체부위로서 이러한 손에 물을 담아서 주는 것은 개와 인간의 관계, 정신적인 것과 본능적인 것과의 관계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소녀는 그녀의 본능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의 본성과 삶의 근원에 접근하는 것이다.

## 2) 나무국자의 변환

국자의 변환에 대해서 살펴본다. 국자가 처음에는 나무국자에서 물을 얻은 뒤 개에게 물을 주고 난 뒤에는 은국자로 변한다. 그리고 어머니와 상봉하여 어머니가 물을 마신 뒤 국자는 금으로 변한다. 소녀는 어머니와 만나서 어머니에게 물을 먼저 건넨다. 소녀 역시 거의 목구멍에서 손이 나올 정도로 물을 마시고 싶지만 꼭 참고 어머니에게 물을 드린다. 이는 소녀의 끝없는 자기희생을 통한 어머니의 재생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녀의 자기희생이 변환의 극

32) Chevalier J, Gheerbrant A(trans by Buchanan Brown)(1996) : *Dictionary of Symbols*, Penguin Books, London, p296.

33) 진쿠퍼/이윤기 옮김(2003) : 앞의 책, pp156-157.

치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국자는 보통 국자가 아니다. 마술의 그릇과도 같다. 잠을 자고 깨어났을 때 국자에 이미 물이 담겨 있었던 이 국자가 은국자로, 금국자로 변화하는 것은 마법의 요술을 떠올리게 한다. 나무-은-금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인식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변화, 변형은 바로 인식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나무와 은, 금에 관한 상징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본다.

은은 나무의 상징을 전체성의 상징으로 보았다. 나무의 상징은 사면적인 나무로부터 시작하여 성장, 삶, 신체 및 정신적 차원으로 접어들었던 무엇을 퍼는 것, 발달, 밑에서 위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자라나는 성장, 모성적인 측면으로 보호함, 그늘제공, 쉼터, 과일에 영양분 공급, 삶의 근원, 확고함, 영속성, 뿌리를 굳게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지점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 죽음과 재생 등 다양한 의미로 발전되었다.<sup>34)</sup>

나무는 태모적인 특징과 전체성을 상징한다. 태모적인 특성이라면 먹이고, 키우고, 보호하고, 생산하는 자연 혹은 대지의 힘과 수용력을 나타낸다. 생물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출생, 성장, 죽음 그리고 재생하는 생명의 끊임없는 순환성을 또한 반영한다. 많은 민족의 신화에서 보면 인간이 한 그루의 나무에서 생겨난다고 한다. 그래서 나무는 생명의 근원이며 풍요의 근원으로 여성적 혹은 지상적 원리를 나타낸다. 그리고 나무는 하부의 뿌리와 그에 상응하는 상부의 가지와 잎 그리고 열매가 총체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형태이다. 뿌리는 땅 속 깊이로 뻗어 지하의 것을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늘로 향하여 나아가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의 세계로 통합하는 의미 즉 세계의 상을 이루는 존재이다. 그래서 연금술에서는 나무를 또한 ‘prima materia’로 보았다. 나무는 그 자체로 천상과 지상을 잇는 ‘세계의 축’이기도 하다.<sup>35)</sup>

엘리아데는 세계의 축으로서의 나무를 궁극적으로 절대적 현실과 불굴의 관념에 이어지는 영원성, 풍요, 창조, 이니시에이션의 표현으로 보았다. 그것은 삶의 원천이다.<sup>36)</sup>

34) Jung CG(1967) : CW 13, *The Philosophical Tree*,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p272-273.

35) 이유경(1998) : “서양 중세 연금술에서의 ‘안트로포스’”, 《심성연구》 제18호, pp19-20.

36) 미르치아 엘리아데/이윤기 옮김(2001) : 《샤머니즘》, 까치, 서울, pp250-253.

소녀가 물을 구하기 위해 국자를 들고 가는데 그 국자가 '나무국자'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나무는 생명의 근원이며 풍요의 근원으로 여성적이고 대지적인 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뭄과 병든 어머니를 치유하기 위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은은 달, 처녀성의 상징이다. 은은 여성이며 여왕이다. 연금술에서 은은 제1 질료의 생성된 그대로의 처녀 상태, [달], 정화된 감정을 나타낸다.<sup>37)</sup>

은은 순수성, 정숙, 달변을 상징한다. 달에 관련된 것, 여성적인 것, 차가운 금속으로 여겨지는 은은 달의 여신(특히 로마의 디아나)과 여왕의 속성이었다. 은은 달과 관련되므로 희망의 빛이나 지혜와도 동일시된다.<sup>38)</sup>

은은 전통적으로 순수, 순결, 무구, 거리낌 없는 양심을 상징해 왔다. 그래서 서양의 민담이나 전설에 자주 등장하는 '늑대인간'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은으로 만든 총알뿐이다. 은은 지혜를 상징하며 나아가 웅변을 상징한다. 동양에서는 정결, 정성을 의미하며 부귀와 장수를 의미한다.<sup>39)</sup>

여기에서 소녀가 개에게 물을 주고 난 뒤에 나무국자가 은으로 변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는 개에게 물을 준 善行에 대한 무의식의 보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심리학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소녀가 개에게 물을 주는 행위는 바로 자신의 본능을 살리는 일이고 무의식에 관심을 갖는 행위로서 소녀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은국자는 어머니가 물을 마신 뒤 금국자로 변하게 되는데 '금'으로 변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무국자에서 은국자로, 은국자에서 금국자로의 변환은 소녀의 어머니를 살리고자 하는 효심에 대한 무의식의 보상으로서의 금으로의 변환이다. 금은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이며 누구나 얻고자 하는 귀금속으로서 금이 지니는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나무국자에서 은국자로 그리고 금국자로의 변환에서 생각나는 민담이 있다.

민담이면서 전래동화로 전해오는 “금도끼와 은도끼”이야기이다. ‘산에 나무를 하던 나무꾼이 그만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는데 아무리 도끼를 건지려고 해도 건지지 못하여 낙심하고 있던 차에 신령님이 나타나서 금도끼와 은

37) 진쿠퍼/이윤기 옮김(2003) : 앞의 책, p218.

38) 잭 트레시터 지음/김병화 옮김(2007) : 《상징이야기》, 도솔, 서울, p167.

39)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1992) : 앞의 책, p565.

도끼를 가지고 나와 이 도끼가 니 도끼냐?라고 묻자 나무꾼은 “아니다.”라고 대답한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라고 말하여, 신령님은 “마음씨가 착하다”고 하면서 도끼 세 개를 모두 나무꾼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인간의 정직함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이다. 또 “혹부리 영감 이야기”에서도 ‘금 나와라 똑딱, 은 나와라 똑딱!’이라고 하여 인간에게 금과 은이 얼마나 중요한 보석인지 나타내고 있다.

용은 연금술사들이 비밀스런 원질로 속에 ‘언기 어려운 보배’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다고 하면서 인간 안에 신을 인식하게 하는 황금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미카엘 마이어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백만 번 돌면서 대지 안에 황금을 만들어낸다. 태양은 점차적으로 자기의 상을 대지에 찍어 넣는다. 이것이 황금이다. 태양은 신의 상이고 심장은 대지 속의 황금처럼 인간 안에 있는 태양의 모상이다. 또한 지상의 신이라고 부른다. 신은 황금에서 인식된다. 황금에 나타난 신상은 아마도 “황금의 혼”일 것이다. 황금의 혼은 평범한 수은에 들어가 수은을 황금으로 변화시킨다.<sup>40)</sup>

금은 고대사회에서 고귀하고 영원불멸의 완전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종교나 신화에서는 태양 또는 왕이나 신을 상징한다. 금과 관련된 사물은 모두 신성, 명예, 위엄을 나타낸다. 이러한 금의 성질 때문에 금은 많은 사람에게 동경과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고대 인도의 경전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옛날부터 금은 마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숭배되었으며 영원과 영생을 갈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증세에 와서 연금술을 발달시켰고 또 당시의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비속한 금속을 녹슬지 않는 영원한 금속인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은 현실에서의 이탈과 정신적 향상의 욕망을 상징하였고, 연금술사들은 금을 혼합된 액체 ‘aurum potabile’를 만들어 팔았는데 이것은 만능약, 미약, 노화 방지약으로 통했다.<sup>41)</sup>

금은 여러 번의 제련과정을 통해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랜 세월을 지나도 부식되지 않는다. 태양처럼 빛나면서 순수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존재에 깃들어 있을 영혼의 정수, 혹은 영

40) Jung CG(2004) : 앞의 책, pp154-157.

41)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2) : 앞의 책, pp94-98.

원성에 대한 동경을 투사하게 됨으로써 금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물질로 여기게 되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물을 마신 뒤 금국자로 변한 것은 금이 지니는 특성으로 보아 물을 마신 뒤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성성의 대변자인 어머니가 물을 마심으로써 기력을 회복해 가는 것은 꺼져가는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불멸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3) 노인의 등장과 다이아몬드의 발견

어머니가 물을 마시고 소녀와 기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노인 한 분이 들어와 물을 달라고 한다. 물이 필요하다는 노인에게 소녀는 자기가 마시고 싶은 것도 있고 노인에게 기꺼이 물을 드리자 노인은 물을 마시지 않고 국자 안의 물을 응시한다. 이어 소녀도 궁금하여 국자 안을 들여다보니 국자 안에는 다이아몬드 일곱 개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소녀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 노인이 등장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노인을 통하여 다이아몬드를 발견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노인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지니고 온 삶의 지혜의 원형상이다. 그러한 노인을 통해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노인은 한편으로는 지식, 인식, 숙고, 지혜, 영리함과 직관을 다른 한편으로는 호의와 협조와 같은 도덕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로써 노인의 '정신적' 성격이 드러난다. 노인이 무의식과 관계한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민담에서 노인을 '숲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분명하다.<sup>42)</sup>

'정신(Geist)'의 요소를 상징하는 것은 대개 노인의 형상이다.<sup>43)</sup> 민담에서 가이스트의 유형이 노인으로 나타날 빈도는 꿈에서 나타나는 빈도와 대체로 비슷하다. 노인은 주인공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철저한 숙고나 운 좋게 떠오른 생각들, 즉 '정신적' 기능이나 또는 정신 내적 자동장치가 주인공을 구할 수 있을 경우에 등장한다.<sup>44)</sup>

노인은 자기의 전체성에 도달하기 위해 서로 다른 매개자, 에로스스와 로고스의 도움을 받는 경향이 있다. 융은 무의식에 숨은 '뜻의 원형(Archetypus des

42) Jung CG(2002) : 앞의 책, p293.

43) Jung CG(2002) : 앞의 책, p284.

44) Jung CG(2002) : 앞의 책, p288.



Sinnes)’과 ‘삶의 원형(Archetypus des Lebens)’으로서의 아니마를 말하면서 뜻의 원형은 노현자의 원형과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 뜻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때로는 삶 속에 이미 뜻이, 뜻이 이미 삶의 체현으로 이어지는 때가 있는 것이다.<sup>45)</sup>

노인은 원형의 하나로서 단순히 나이 든 노인이 아니고 사물의 선악을 가릴 수 있고 곤란에 빠졌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지할 수 있고 세상사의 쓴맛 단맛을 다 아는 이미지이다. 노인은 소녀로 하여금 전체성에 이르게 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에 노인이 등장하여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과정이 그러하다.

노인과 소녀가 함께 국자 속의 다이아몬드를 보자 7개의 다이아몬드는 하늘 높이 날아가 북쪽 하늘에 일곱 개의 별이 되어 국자의 모양으로 반짝였다.

윤은 『황금 꽃의 비밀(태을금화종지)』로 알려진 중국연금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금강체’로써 변환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정신의 불멸성이라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 다이아몬드는 그 투명성, 불같은 번뜩임, 강인함 때문에 불멸성에 적합한 상징이라고 하였다.<sup>46)</sup>

다이아몬드는 빛, 생명, 태양, 영속성, 불후성, 지조가 굳음, 성실, 순진무구함을 의미한다.<sup>47)</sup> 다이아몬드는 연금술에서 잘 알려진 상징으로 부패하지 않는 금강체 혹은 신비체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의 정신에서 통합된 하나의 중심을 상징한다.<sup>48)</sup> 다이아몬드는 영원성, 불멸성을 상징하며 대극의 통합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다이아몬드가 북쪽 하늘에 국자 모양으로 반짝인다.

소녀가 물을 구하여 먼저 개를 먹이고 다음 어머니에게 드린 후 노인이 등장하면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7개의 다이아몬드는 북쪽 하늘에 ‘일곱 개의 별’이 된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으로 초월적인 것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초월적 기능은 의식과 무의식적 내용의 합일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45) 이부영(2001) :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서울, p241.

46) Jung CG(2006) : 앞의 책, pp263-264.

47) 진쿠퍼/이윤기 옮김(2003) : 앞의 책, p179.

48) 테오도르 압트 지음/이유경 옮김(2008) : 《윤 심리학적 그림해석》, 분석심리학연구소, 서울, p135.

#### 4) ‘일곱 개의 별’과 민간신앙인 七星신앙

일곱 개의 다이아몬드가 날아가 일곱 개의 별이 되어 국자의 모양으로 반짝인다는 내용에서 북두칠성과 우리나라의 민간신앙으로 전해져 내려오는七星신앙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별’의 의미를 찾아본다. 별은 신의 존재, 至高한 존재, 영원한 것, 죽지 않는 자, 최고의 위업, 신의 사자인 천사, (어둠 속에서 빛나는) 희망, 밤의 눈을 나타낸다. 별은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는 모든 여신의 부수물이며 그 여신들은 별의 관을 쓰고 있다. 별은 아침의 금성이나 저녁의 금성으로 불리는 이슈타르 여신이나 베누스 여신의 상징이다. 북극성은 하늘에서는 중요한 곳이며 밤에는 <하늘의 문>이 된다. 북극성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다.<sup>49)</sup>

별은 진리를 상징하여 미래를 위한 계시의 상징이며 감추어진 것의 상징이기도 한다. 시베리아에서는 별에 개별적인 특성과 능력을 부여하고, 이를 ‘북극성’이라 불렀으며, 별은 법과 권리를 지키고 악령을 막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sup>50)</sup>

별의 세계는 항상 영원하고 신성한 존재의 세계로 주목받아 왔다. 이집트에서는 영생불멸한 정신의 영적인 부분이 소위 바(Ba)로 표상되었는데, 그것은 새나 별로 태어났다. 그것은 사후에도 지속되는, 죽은 뒤에 떠도는 별이 되어 태양신을 따라 다니는 인격의 부분을 상징화했다. 따라서 별은 고유한 인격체의 영속성과 관련된다. 그것이 별에 투사된 것이다.<sup>51)</sup>

별은 밤의 눈으로써 지고하고 영원한 존재인데 이러한 별이 일곱 개가 있다. ‘7’이 갖는 의미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숫자 ‘7’은 전체성을 의미하며 상서로운 의미로 많이 나타난다.

수학적으로 숫자 7은 소수이다. 1에서 10까지의 숫자들 중에서 그 자신이 다른 수로 나누어지지 않고, 다른 수의 약수도 될 수 없는 유일한 숫자이다. 그래서 일곱은 유일하고도 독립적인 일종의 <처녀성의 수>로 간주된다. 3과 4의 합으로서 일곱은 시간의 비가역적인 발전(3)이 4요소의 실재성과 통합을 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일곱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진화적 발전의 숫자이다. 한 주에 7

49) 진쿠퍼/이윤기 옮김(2003) : 앞의 책, pp330-332.

50) Brednich, Rolf Wilhelm(1990) : *Enzyklopädie des Märchens*, Bd.12, Walter de Gruyter, Berlin, p1275.

51) Fraser Boa/박현순, 이창인 공역(2004) : 《융학과의 꿈 해석》, 학지사, 서울, p68.

일은 전체 달의 순환으로서의 한 달을 넷으로 나눈 결과이니 만큼, 일곱은 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생물의 성장, 여성의 다산 그리고 변환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의 다산이 달의 순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런 주기성이 내면의 기본적인 리듬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일주일(7일)이라는 것이 달 순환 주기의 사분의 일과 아주 근접하기 때문에 숫자 7은 자연 및 자연적 성장과 관계하는 식물적 신경체계라고 할 수 있는 <내면의 세계>와 연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숫자 7은 성장, 다산, 변환과 관련이 있다.<sup>52)</sup>

신의 숫자 3과 인간의 숫자 4의 합계인 7은 대우주와 소우주를 나타내며,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표현해 준다. 그런 까닭에 세상은 7일 만에 창조되었고, 인간을 신으로부터 갈라놓는 7대 죄악이 있으며, 우리가 신에게로 되돌아가기 위해 거쳐 여행해야만 하는 입문의 일곱 단계(일곱 천국)가 있다. 이 숫자는 그리스 신 아폴로와 바빌로니아의 풍요의 여신 이슈타르에게 바쳐진 숫자이다.<sup>53)</sup>

북두칠성은 북쪽 하늘에 국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7개의 별들을 말한다. 동양에서는 독립된 별자리이지만 서양에서는 큰곰자리의 일부분으로 여긴다. 현대 천문학의 별자리 그림에서는 큰곰자리의 꼬리에 해당하는  $\alpha$ 별에서  $\eta$ 별까지 7개의 별이며, 동양에서는 각각 천추·천선·천기·천권·옥형·개양·요광으로 부른다. 북두칠성은 밝고 모양이 뚜렷해서 항해의 지침이나 여행의 길잡이로 이용되었다. 또한 북극성을 중심으로 일주운동을 하고 북반구에서는 사계절 어느 때나 볼 수 있으므로 그 위치를 보면 밤에도 시간을 알 수 있어 밤에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도 쓰였다. 한국의 민간신앙에서는 칠성을 신으로 모시기도 했는데, 칠성은 비, 수명, 인간의 운명 등을 관장하는 것으로 여겨 칠성단을 쌓고 그 위에 정화수를 놓아 빌기도 했다.<sup>54)</sup>

우리의 민속에서는 일곱을 북두칠성에다 비유한다. 따라서 일곱의 도상은 북두칠성의 별자리라고 하겠다. 그리고 칠성 탕화나 칠성각, 칠층탑 등은 모두 북두칠성과 관련된다.<sup>55)</sup>

민담 ‘일곱 개의 별’은 북두칠성이 생긴 내력을 담은 러시아의 아름다운 이야기

52) 테오도르 압트 지음/이유경 옮김(2008) : 앞의 책, pp141-143.

53) 데이비드 폰테너 지음/최승자 옮김(1998) : 《상징의 비밀》, 문학동네, 서울, p64.

54) 한국브리태니커지음(2002) :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10권》, 한국브리태니커, 서울.

55)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1992) : 앞의 책, p583.

기이다. 복두칠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민간신앙으로 전해져 내려오는七星신앙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칠성을 모시게 된 것은 도교의 전래와 관계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려시대에 조정에서 太一을 지낼 때 칠성신을 제사 지냈고, 무속에서도 칠성신을 모셨다고 한다. 기우제에서 칠성신을 모신 것은 고려 조선을 통해서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것이며 궁중의례가 자연 민간에 영향을 끼쳐 민간신앙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sup>56)</sup>

오늘날 민속에서 보이는 칠성신의 기능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를 내리는 신앙과 관련되어 물로 상징되고 비를 내리는 신이라 믿어진다. 둘째,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믿어진다. 특히 어린아이의 수명을 수호하는 신으로 믿어진다. 셋째, 재물과 재능에 관한 것을 관장하는 것으로 믿는다. 농사나 어업이 잘되기를 빌거나 재능이 뛰어나서 입신출세하고 과거에 급제하도록 칠성신에게 비는 신앙이 있다. 이러한 신앙은 단순히 민간신앙에 그치지 않고 불교신앙으로서도 수용되어 불교사찰 안에 칠성각이 자리하게 되었다. 칠성각은 민간신앙인 도교적 신앙을 받아들인 것으로 민간신앙과 불교와 도교의 습합의 예로 볼 수 있다.<sup>57)</sup>

이와 관련한 신화가 있다. 短命의 운수를 타고난 어린이의 수명을 관장하고 있는 칠성에 관한 신화이다. 남두칠성과 복두칠성이 마주 앉아서 바둑을 두고 있는 곳에 단명을 타고난 소년이 가서 장수를 부탁하여 복두칠성으로부터 수명을 연장 받아 왔다는 내용이다. 바로 복두칠성이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장수의 신으로 되어 있다는 신화의 모티브이다. 이는 단순히 신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민간신앙 가운데까지 관념되어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무가 제석본풀이에서 절에 불공을 드린 사람이 낳은 외동딸이 중의 자식을 잉태하였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다가 뱀으로 변신하여 일곱 마리의 뱀을 낳았는데 모두 딸이었다. 막내딸이 뒤꼍 주저리 밑으로 들어가 부근칠성(밖칠성)이 되었고 어머니는 쌀독으로 들어가서 부자가 되게 하는 안칠성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재물과 소원성취의 신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sup>58)</sup>

56) 최길성(1989) : 《한국 민간신앙의 연구》, 계명대학교, 대구, pp282-283.

57) 최길성(1989) : 앞의 책, pp283-284.

58) 최길성(1989) : 앞의 책, p284.

우리나라 민담에서 복두칠성과 관련된 유화를 살펴본다. 먼저 ‘복두칠성의 유래(충청도편)’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간략히 정리해 보면

“어떤 과부가 아들 일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이 과부는 바람이 나서 강 건너의 情夫를 만나려고 깊은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몰래 강을 건너가곤 했다. 오래 계속되니 아들들도 어머니의 밀회를 알게 되었다. 추운 밤중에 아들들은 몰래 다리를 놓아 주었다. 신을 벗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었던 어머니는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하느님, 이곳에 다리를 놓아 준 사람은 복두칠성이나 남두칠성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하늘도 그 뜻을 받아들여 7형제는 나중에 죽어서 복두칠성이 되었다고 한다.<sup>59)</sup>

이 이야기는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사랑이 돋보이고 이점에서 러시아 민담과의 접점을 볼 수 있다. 러시아 민담에서는 소녀가 어머니를 위해 물을 구하러 길을 나서는데, 이 민담에서는 일곱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다리를 놓아주는 이야기이다.

중국 신화에 보면 우리나라의 복두칠성의 이야기와 비슷한 신화가 있다. 중국에서는 모든 별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복두칠성이었다. 복두칠성은 인간의 생명을 관장한다. 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복두칠성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오늘날에도 시신을 매장할 때 七星板 위에 놓히는 것은 죽은 영혼이 생사를 주관하는 복두칠성으로 되돌아간다는 고대의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래 복두칠성 숭배는 샤머니즘과 관련이 깊다. 샤머니즘에서는 복두칠성이 천계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후세에 샤머니즘을 계승한 도교에서는 최고신 옥황상제의 궁궐이 복두칠성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상상하였다.<sup>60)</sup>

유화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복두칠성 이야기는 어머니 또는 수명과 관련하여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과 나중에 별이 되어 ‘복두칠성’이 된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이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사뭇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상 민담에서는 가뭄이 들어 어머니가 증병이 들어 소녀가 물을 찾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곱 개의 다이아몬드가 생겨나 하늘로 날아가 복두칠성이 되었다는

59) 임동권(1972) : 《한국의 민담》, 서문문고 031, 서울, pp81-82.

60) 정재서(2005) : 앞의 책, pp93-94.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민담의 충청도편의 「복두칠성의 유래」에서는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여 결국 복두칠성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대상민담과 우리나라 민담에서는 자식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중국 신화의 「복두칠성」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별로서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 전라북도에 전해 내려오는 수명과 관련한 복두칠성의 이야기와 유사하며, 민간신앙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칠성신앙과도 그 내용이 유사하다. 수명을 관장하는 신이란 인간 운명을 좌우하는 신을 말한다.

대상민담에서 소녀가 나무국자를 들고 길을 떠나 물을 얻고 귀환하여 마침내 국자 속에 일곱 개의 다이아몬드가 하늘로 날아가 복두칠성을 이룬다는 것은 소녀가 위기에 처한 여성성과 모성성을 회복하고 마침내 전체가 됨으로써 심리적으로 초월적 기능이 발휘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별은 자기원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자기원형은 지남력의 원형으로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혼돈에 빠져 있을 때 방향을 가리켜 주는 것이다. 그것은 “질서를 형성하며 혼돈으로 하여금 우주로 전환케 한다.”<sup>61)</sup> 인간심성에는 이러한 내적인 치유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생명의 원리로서 정신의 통일을 지향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6. 모성의 회복과 비, 축제

소녀가 가지고 온 물로 어머니와 소녀, 마을 사람들 모두 물을 마시고 기운을 회복하였고 마침내 비가 내려 모두가 되살아 난 기쁨에 춤을 추었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가슴 속 깊이 잔잔하게 다가오는 아름다운 감동이 전해온다.

모두가 기운을 회복하고 비가 내림으로써 새롭게 되살아 난 기쁨을 느꼈다는 것에서 문제해결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야기의 도입부에서 온 세상이 가뭄이 들었다고 시작하는 것과 이야기의 결말에서 비가 내리고 모두가 춤을 추었다는 것은 소녀의 물을 찾아 집을 나서는 행동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집단이 지니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비는 신의 축복, 계시, 하늘의 힘이 내려오는 것, 至福, 정화, 多産을 상징한

61) Jung CG(1951) : *Aion*, Rascher, Zürich, p56. ; 이부영(1999) : 앞의 책, p117. (재인용)

다. 또한 다산과 연관되는 육체적 관통과 영적 계시로서의 관통을 상징한다. 모든 하늘의 신이 대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것은 비에 의해서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대지를 잉태시킨다. 잉태한 대지는 인간과 짐승을 위해서 곡물을 낳는다.’<sup>62)</sup>

신화에 있어 비는 인간사에서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풍요와 다산, 생명력을 상징한다. 비의 혜택을 입은 땅은 만물을 소생시키고 싱싱한 생명력이 충만한 결실을 가져온다. 이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희망이고 대지에는 축복이다.<sup>63)</sup> 민담에서 비는 모성성의 부재로 메마른 영역을 적셔주는 축복의 비이며 대지에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고, 이는 하늘과 땅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시키며 화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소녀가 갖고 온 물, 생명수로 어머니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기운을 회복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것은 바로 대지를 살리고 잉태시키는 모성성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이 함께 모여 춤을 추는 것은 바로 문제해결로 인한 새로운 창조와 에너지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춤은 우주 창조의 에너지, 공간을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것, 우주의 리듬을 의미하며 신의 창조, 행위를 모방하는 것, 힘과 감정 그리고 활동의 강화를 뜻한다.<sup>64)</sup>

대지에 비가 내리고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었다는 것은 대지에 축복의 비가 내림으로써 만물을 소생시키고 우주 창조의 새로운 생명력이 충만함이며 온 세상에 역동적인 에너지가 가득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치유는 이렇게 전체가 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 그녀의 본성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새로운 창조적인 에너지의 충만함으로 풍요로움이 가득한 삶이 될 것이다.

## 나가는 말

대상민담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소녀에게 적극적인 나섭과 끝없는 인내와 자기희생을 요구한다.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인내하며 겪어내는 자기희생과 남

62) 진쿠퍼/이윤기 옮김(2003) : 앞의 책, p284.

63)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2) : 앞의 책, p380.

64) 진쿠퍼/이윤기 옮김(2003) : 앞의 책, p98.

을 위한 배려 자체가 여성적인 인격의 위대함이라 할 수 있다. 여성에게는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들을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부분적인 인격의 면모를 벗어나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다시 통합하게 만들고 나아가 보편적인 인간이 되게 하는 변화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우리 인간의 삶의 과정은 변화해 가는 과정으로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지만 개인의 개성화과정에서 의식화 되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체합하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자녀들로 인하여 새로워진다.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계속적인 변환에 내맡겨지고 그로 인하여 죽음과 재탄생 그리고 발전을 이루며 영원한 변환과정이 이루어진다.

대상민담에서 소녀는 새로운 여성적 가치를 의미하며 신생기능으로써 개인을 넘어 마침내 집단을 이끌어 가는 가치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소녀가 처음에는 어머니를 위해 길을 떠나 물을 구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에 앞서 만나는 대상들 모두에게 물을 공양하는 모습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녀는 물을 구하고 기쁨에 넘쳐 돌아오는 길에 먼저 개에게 물을 주었고, 소녀도 목이 타는 듯 했지만 어머니는 물론 노인에게까지 물을 양보하고 먼저 건네준다. 그런데 국자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줄지 않아 어머니와 소녀는 물론 마을 전체 사람들도 이 국자의 물을 마시고 모두들 기운을 회복한다. 그리고 오랜 가뭄도 끝나고 비가 내린다. 이것은 소녀가 물을 구하여 돌아오는 길에 개는 물론 그때그때 필요한 대상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 전체가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어머니를 위한 소녀의 희생적인 행위가 마침내 마을 전체를 위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민담에서 드러나듯 소녀는 결국 개인의 삶을 넘어 집단의 삶을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된다.

대상민담은 ‘딸’, ‘소녀’라는 새로운 기능을 통하여 모성성이 새로워짐으로써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과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는 무의식의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담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해 보는 작업은 옛 사람들이 원형의 층과 가까이 잘 지내면서 에너지를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내적 체험과 감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기실현의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상 민담은 자신의 근원인 집단적 무의식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되면 황폐



해지고 파괴적이 되므로 자신의 근원인 무의식과 관계를 잘 형성해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자는 대상민담을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시도하면서 내면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 민담이 인종과 문화를 떠나 모든 인류의 국제 통용어처럼 인간 삶의 기본을 다루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데이비드 폰테너 지음, 최승자 옮김(1998) : 《상징의 비밀》, 문학동네, 서울.  
 모린더독, 고연수 옮김(2014) : 《여성 영웅의 탄생》, 교양인, 서울.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옮김(1993) : 《종교사개론》, 까치, 서울.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 옮김(2001) : 《샤머니즘》, 까치, 서울.  
 延炳吉(1990) : “한국의 물의 상징성에 관한 소고”, 《심성연구》 제 8호, 한국분석심리학회.  
 앙필, 이채우 옮김(2005) : 《앙필의 노자주》, 한길사, 서울.  
 유원수 엮음(2004) : 《세계민담전집 03 몽골민담》, 황금가지, 서울.  
 이부영(1999) :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_\_\_\_\_ (2011)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_\_\_\_\_ (2001) :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서울.  
 \_\_\_\_\_ (2012) : 《노자와 용》, 한길사, 서울.  
 이우경(1998) : “서양 중세 연금술에서의 ‘안트로포스’”, 《심성연구》 제18호, 한국분석심리학회.  
 임동권(1972) : 《한국의 민담》, 서문문고 031, 서울.  
 정신문화연구원(1980) : 《구비문학대계 5-1》, 전북남원군편.  
 정재서(2005) : 《이야기 동양신화 1, 2》, 황금부엉이, 서울.  
 잭 트레시더 지음, 김병화 옮김(2007) : 《상징이야기》, 도솔, 서울.  
 조봉제(1975) : 《세계의 민담》, 아카데미, 서울.  
 최길성(1989) : 《한국 민간신앙의 연구》, 계명대학교, 대구.  
 최운식(1984) : 《한국민담집 : 충청남도민담》, 집문당, 서울.  
 진쿠퍼, 이윤기 옮김(2003) :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서울.  
 테오도르 압트 지음, 이유경 옮김(2008) : 《용 심리학적 그림해석》, 분석심리학연구소, 서울.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1992) : 《한국문화상징사전 1.2》, 동아출판사.  
 Fraser Boa, 박현순, 이창인 공역(2004) : 《융학과의 꿈 해석》, 학지사, 서울.  
 Jung CG(한국 융 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2) : 융 기본저작집 2권《원형과 무의식》, 숲 출판사, 서울.

- \_\_\_\_\_ (한국 용 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4) : 용 기본저작집 6권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 출판사, 서울.
- \_\_\_\_\_ (한국 용 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6) : 용 기본저작집 8권  
《영웅과 어머니원형》, 솔 출판사, 서울.
- \_\_\_\_\_ (한국 용 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4) : 용 기본저작집 9권  
《인간과 문화》, 솔 출판사, 서울.
- \_\_\_\_\_ (1959) : CW 9-1,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Kore*,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67) : CW 13, *The Philosophical Tree*,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63) : CW 14, *Mysterium Coniunctionis*,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54) : CW 16, *The Psychology of Transference*,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Brednich, Rolf Wilhelm**(1990) : *Enzyklopädie des Märchens*, Bd.12, Walter de Gruyter, Berlin.
- Chevalier J, Gheerbrant A**(trans by Buchanan Brown)(1996) : *Dictionary of Symbols*, Penguin Books, London.
- Von Franz ML**(1970) : *An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y of Fairy Tales*, Spring Pb., N.Y.
- Stith Thompson**(1955) : *Motif Index of Folk Literature*, Vol 1, Indian Univ. Press.

Shim-Sŏng Yŏn-Gu 2015, 30 : 1

〈ABSTRACT〉

**Analytical Psychology–Based Interpretation of a Russian Fairy Tale Entitled “Seven Stars”\***

Myeong-Sook Hwang \*\*

A study on a Russian fairy tale entitled “Seven Stars” was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The plot goes as follows.

Once upon a time, a village in Russia was suffering from severe drought. Villagers were dying of thirst, and crops were withering day by day. One night, a little girl left their house carrying a wooden dipper to find water for her sick mother by herself. However, water was nowhere to be found. She felt tired and fell asleep. When she woke up, the moon was already over her head, and the dipper had been filled with water. On her way home to give the water to her mother, she found a dog lying on the ground. The dog was also dying of excessive thirst, so she gave the dog a handful of water. Then the wooden dipper suddenly turned into a silver dipper. When she had finally arrived home and her mother has drunk the water, the silver dipper changed into a golden dipper. At that moment, an old man showed up and asked for water. The little girl gave him water. When the old man stared at the water, she realized that there were seven diamonds twinkling like stars in the dipper. The water never ran out. Surprisingly enough, the seven diamonds suddenly soared up into the sky and eventually formed a constellation of the Big Dipper. The water was shared with the other villagers who, then, recovered their strength. The severe drought came to an end, and the villagers danced together with joy.

In this fairy tale, the severe drought symbolizes devastation caused by a unidirectional stream of consciousness while the little girl represents a new function, which shows the value of women who can heal and restore from that devastation. Symbolized in a fairy tale character such as ‘a daughter’ or ‘a lit-

tle girl', the new function eventually reaches up to the value which leads and affects the group as well as individuals. To conclude, this new function represents the unconscious process whose role is to revitalize the maternity and resolve the problems posed to a group as well as individuals.

**KEY WORDS** : Fairy tale · Seven Stars(Big Dipper) · Analytical psychology · Mother archetype · Fertility.

---

*\*This article extensively revises and modifies the article entitled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of fairy tale entitled 'Seven Stars'" published in Practical Religious Study(8th issue, 2009).*

*\*\*Won buddhism minister of Junggu Won buddhism Templei*